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 강령을 높이 받들고 당창건 7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총진군의 불길기 새차게 타변지고 있는 속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가 6월 7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내각부총리들과 일부 도당위원장들, 위원회, 성책임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나서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었다.

첫째의정으로 나라의 화학공업을 전망있게 발전시키는데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속적인 발전계획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고 인민경제의 주타격전선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 당이 화학공업을 금속공업과 함께 자립경제의 쌍기둥으로 내세우고 당 제7차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세계적추세에 맞게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방침



을 제시한 후 그 사업을 본격화하여온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위원회에서 화학공업발전의 핵심사항으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과 비료생산능력조성문제를 취급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화학공업전반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벌려나갈 구상과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회의에서는 내각총리가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의 과학기술적담보와 경제효과를 재검토심의를 한 과학그루비의 사업정형과 화학공업부분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화학공업발전의 새 활로를 열어놓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분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학공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부분에서 무엇보다도 비료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인 문제로 보고 대하며 이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데 대하여서와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카리비로 공업을 창설하는데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존화학공

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과 당면목표를 제시하시고 새로운 원료에 의거하는 화학공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내원료와 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각종 화학제품들을 수요대로 중단없이 생산해내는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자원절약형, 기술집약형, 개발창조형의 다방면적인 생산체계를 갖추는것이 주체화된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로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의정과 둘째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셋째의정으로 현행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규약상문제들을 일부 수정하고 당규약개정안에 반영할데 대한 의견을 심의비준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넷째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는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 높이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 힘있게 추진

삼지연시를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하여 펼쳐나선 건설자들이 3단계공사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천수백동의 건물골조공사를 결속한데 맞게 여러종의 마감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토대를 갖추어 방대한 건설대상을 빠른 시일에 완공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이

와 함께 지대정리도 적극 진척시켜 성과를 거두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연속공격, 계속전진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특히 지휘일꾼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에서 기수가 되어 내달리며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성, 중앙기관련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기세가 대단하다. 려단에서는 공적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돌격전진이 과감히 벌어져 대부분의 려대, 대대가 맡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미장공사를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한편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형조건이 불리한 개소를 정리하기 위하여 3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4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원구획을 형성함으로써 지난 5월 공사수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금 민족의 생산 백두산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려일 로력적위훈을 세우는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는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찬양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미래의 혁군으로 여세게 자라나도록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칭송하고있다.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인터넷트홈페이지에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리 학생소년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누리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6월 6일은 조선소년단이 창립된 날이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는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경축행사를 전례없는 규모에서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도 모스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도 하시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천품으로 지나신 절세의 위인을 명도자로 모시고있는 조선의 학생소년들은 나라의 왕으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떠날리우고있다.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인터넷트홈페이지에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리 학생소년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누리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경축행사에 참가할 평범한 근로인민들의 아들딸들을 위하여 사랑의 비행기가 날고 특별렬차가 달리는 경이적인 현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소년단 대표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이란히 앉으시어 음악회를 관람하시고 거듭 자리를 옮겨가시며 사랑의 기념사진

도 찍어주시는 숭고한 화풍은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은위원장의 품속에서 조선의 새 세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만민을 메혹시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품모에서 특히 감동되는것은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라고 하면서 인디아신문 《뉴델리 타임스》는 후대를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후대관, 미래관이라고 격찬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 있어서 제일 기본 순간은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놓았을 때이며 제일 행복한 순간은 아

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때이다.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시며 두볼도 다독여주시고 그들의 귀속말로 다정히 들어주시는분이 바로 그들이시다.

국제사회는 새 세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김정은위원장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 있다. 신문들인 《모스콥스키 콤포스레프》, 《로스스까야 가제타》, 《레베레 TV방송》, 《RT》TV방송, 에호 모스크비방송, 인터넷신문 《에지나야 프레야》, 인터넷잡지 《렘취》를 비롯한 로세야언론들도 《김정은령도자와 아이들》, 《미래를 사랑하는 령도자》 등의 제목으로 절세위인의 뜨거운 후대사랑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신문 《콤포스콜스까야 브라우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의 학부형이 되어서 평가방과 교복, 교과서와 학습장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마음쓰신다.

따사로온 그 사랑이 있어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과의요양기지가 훌륭히 일떠섰다. 조선에서는 령도자와 아이들사이의 혈연적유대를 보여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피나 세인을 감동시키고있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두팔을 벌리고 스스럼없이 달려가 안기는 품은 바로 김정은동지의 품이다.

본사기자